

민주 강병원 의원, 전북 찾아 당대표 지지 호소

“젊고 새로운 역동적 리더십 필요”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에 걸맞는 당을 통합하고 혁신할수있는 젊고 새로운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강병원 의원은 “작년 0선의 이준석 대표가 등장했을때 모든 정치인이 깜짝 놀랐으며, 그 변화의 힘이 민주당의 정권을 뺏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의 선택이 전북 도민들 또한 젊고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증거라며, 새롭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것이 자신 강병원이다”며 전북 도민들에게 어필했다.

강 의원은 “당대표에 당선될 시 당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고 모든 공천관리위원들을 모두 중앙위원들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정을 실현하겠다”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당의 윤리위원회를 모두 외부인사로 영입해 앞으로 민주당에서 성 비위, 부정인사, 부당산 투기로 인한 문제를 만들지않겠다”고 공약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 관해서는 “그 동안 당이 해왔던 선택 인사들의 반



고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에게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선택, 새로운 사람 원하는 증거
당대표 되면 시스템 공천 통해 공정 실현할 것
당 윤리위 모두 외부인사로 영입 당내 도덕성 회복”

짜 영입을 지양하고 생활정치에 모 광역의원들 위주로 충원해 민주당에
범을 구현한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애정을 갖고 가치와 노선을 맞춰 생

활했던 사람들을 중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병원 의원은 “이재명의 계약을 출마와 송영길의 서울시장 출마는 엄지없는 후안무치한 출마”라고 평가하며, “그로 인해 지방선거가 대선시점으로 만들어져 대선불복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지방선거패배로 이어졌다”며 그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97세대 단일화에 대해서는 “8월 28일 컷오프까지는 각 후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비전을 소상히 밝혀야 하며, 컷오프가 끝난 이후에 본선 지출자 3명들과 함께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인물이 본인이나 전북 장수출신의 박용진 의원이라면 전북에게 너무나 좋을 것 같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상직 의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주를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라는 질문에 “자신은 당의 귀책사유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박원순·오거돈 등과 같이 했던 과거를 되돌리려 안 된다며,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군은 7명으로 예상되며 ‘하대명’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의원과 97세대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전북 방문 민주 당권주자 전주를 공천에 “부정적”

김민석 “당이 원칙 지켜나가야”
박용진 “종로서도 후보 안 내”
강병원 “오거돈 등과 같이 했던 과거 되돌리면 안돼”
당 혁신 위해 공동 의견 내비치

당내 8명 후보 전주를 보궐
출마 위해 지역위원장 경험
사실상 선거전 시작 혼란 가중

이상직 전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전주를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북도를 방문한 김민석(영등포구 을), 박용진(강북구 을), 강병원(은평구 을)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잇달아 전주의 공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당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가장 먼저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소탐대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 종로구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을 적이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박원순·오거돈 등과 같이 했던 과거를 되돌리면 안 된다며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의견에 동참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가 예정된 7명의 후보 중 3인의 후보가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으며, 그들은 당내 중대과실과 혁신을 위해서라는 공통의 의견을 내비쳤다.

전주를 지역은 이미 민주당 내 8명의 후보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지역위원장 경험에 나서며 등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되어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전주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상직 전의원은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79호 발간

제12대 도의회 소식 · 11대 의정활동 결산 등 담아

제12대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출범에 맞춰 도의회 의정활동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2 여름호(제79호)』가 발간됐다고 밝혔다.

여름호에는 12대 도의원들의 포부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인사발 등 이 실렸다.

40명의 새 얼굴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도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장단도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막을 내린 제11대 도의회 의정활동 결산 소식과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389회 임시회와 제391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5분 발언과 제정 및 개정된 조례, 채택된 건의·결의문도

정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농촌활력 대책과 공공기관 유치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군산공항 항공편 증편과 동화농민협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건의 등도 함께 실렸다.

소식지에는 의정소식 외에도 새만금 개발 현황과 여름에 찾으면 좋은 휴양지 고군산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소개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12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더 활발하게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제언과 비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소식지는 무료로 배포하며,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mm.jonbuk.kr)나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사회적 물의 정치인 징계 강화... 민주, 10대 혁신과제 선정

혁신플랜 보고회 열고 민심 중심 선거인단

당 플랫폼 활성화 · 청년당 활성화 등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자폭탄’ 행위 제재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에 대한 징계 제도화 등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혁신플랜 보고회’를 열어 우선추진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추진 10대 과제는 ▲민심 중심 선거인단 ▲민주당 플랫폼 활성화 ▲당원의 의무 실현 ▲당론 결정 프로세스 혁신 ▲젠더폭력 등 윤리규범 위반

사건 처리제도 ▲물의 일어난 정치인 징계 강화 제도화 ▲100년 민주당을 위한 가칭 민주당 인재원 ▲청년당 활성화 ▲가칭 ‘국민정책전담대회’ 정례화 ▲정책당원과 정책대의원 정상화 등이다.

10대 과제 중 민심 중심 선거인단 과제는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심과 당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시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10%에서 30%로 늘린

것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당 플랫폼 활성화 과제로는 ‘당원 청원제도’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시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권리당원 2만명의 청원 동의를 있을 때 최고위원회에 보고되고 5만명의 동의를 있을 때는 청원에 대해 지도부가 답변할 예정이다.

당원의 의무 실현 과제는 욕설 및 문자폭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골자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며 다른 의견을 봉쇄하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젠더 폭력 등 윤리규범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에 대한 징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민주당 인재원’을 준비할 예정이다. 선거 때만 이뤄지는 인재 여력이 아니라 평생 시 당내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상시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 경상보조금의 5%를 독립적으로 청년위원회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당 활성화도 모색한다.

/뉴스스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